

'23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18	회의실	7/12	4	1	12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곽선희·김영신·송경용·심상돈·오광호·조경완·최정욱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윤행석(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3	4	1	0	8	0	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7	1	0	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각종 선거의 문제점에 관해 이슈로 다루었으면 함	-<시사 ON> ‘정치개혁을 말하다’ 1, 2편(1. 13, 20) 방송 조치	’23.1.
"	생수 100만 병 챌린지, 뉴스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소개 바람	-생수 100만 병 챌린지 캠페인 TV 방송(2023.1~현재), <뉴스데스크> 먹는 물 나눔 활성화(1.17), ‘먹는 물’ 기부 시작(1.17) 등 방송 조치	"
"	<시사 인터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쟁점과 전망(1.31),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 대표보다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일반인의 인권에 대해 언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교양	<본방을 보자> 리포터의 제스처가 과해 부담스러움	-편성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오픈 채팅방 코너, 방송 중간에 실시간을 소개하면 시청자 참여가 높아질 것임	-편성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방송 중 오픈 채팅방 코너 소개 시행 조치	"
"	<본방을 보자> 광주·전남 지역의 주제 확대 바람	-<본방을 보자> 마음을 전해요! 고향사랑 기부제(2.9), 빠르고 편안한 광주선 셔틀열차(2.8) 시간을 품은 가게(목포, 2.1), 우승 향한 질주! 광주 핸드볼(1.25) 등 지역 주제 방송 조치	"
"	<해상왕국 마한>, 왕인박사가 마한 시대 일본교류의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편성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연예·오락	<광주와 페스티벌> 사전 홍보 미흡 아쉬움	-편성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총 건수		8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보도	각종 선거의 문제점에 관해 이슈로 다루었으면 함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확정 문제와 신인 발굴 등의 이슈를 선정해 뉴스 아이템과 시사온 아이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		
"	생수 100만 병 챌린지, 뉴스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소개 바람	앞으로도 생수 모집이나 취약계층 지원 이벤트 과정을 뉴스에 담아내도록 하겠으며, 스포(홍보)으로 SB 시간대에 지속해서 방송되고 있음	○		
"	<시사 인터뷰 오늘> 이재명 민	추후 다른 아이템 방송 시 반영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쟁점과 전망(1.31),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 대표보다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일반인의 인권에 대해 언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하도록 하겠음			
교양	<본방을 보자> 리포터의 제스처가 과해 부담스러움	박지선 리포터의 플레이는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는 캐릭터이자 콘셉트임. 제작진에게 전달 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오픈 채팅방 코너, 방송 중간에 실시간을 소개하면 시청자 참여가 높아질 것임	방송 중간에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음	○		
"	<본방을 보자> 광주전남 지역의 주제 확대 바람	프로그램의 구성상 타사 꼭지를 교환하고 있음. 제작진에 전달 하겠음	○		
"	<해상왕국 마한>, 왕인박사가 마한 시대 일본교류의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왕인은 백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마한이 백제에 복속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마한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음. 그동안 광주MBC '마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왕인 마한인설'에 근거해 왔음		○	
연예·오락	<광주와 페스티벌> 사전 홍보 미흡 아쉬움	SNS 홍보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유튜브 LIVE, 현장직관 관객 수는 주목할 만큼 많았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1월)

일 시		2023. 1. 18.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곽선희, 김영신,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조경완, 최정욱(7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2023년 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올 한해에도 광주MBC가 지역의 공영방송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연초부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광주문화방송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로서 올해도 공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로 시청자와 함께하겠다. 특히 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2023년 다양한 연중기획을 통해 시청자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로 듣겠다.
- 곽선희 부위원장 : -2023년에는 좋은 일들이 넘치시기 바란다. <시사 ON>에서는 6.1 지방선거에서 13명 무투표 당선, 투표율 37.7%는 민심을 못 읽은 최악의 공천 결과로서 지역정치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를 소개했다. 기득권 정치인들의 정치만 하면 된다는 반성 없는 이기적 사고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에 공감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단체장, 지방의원 동시 선거의 문제점 지적에는 한국미래정치 답답함과 함께 이상과 괴리 느껴졌으며 언론에서 끊임없는 이슈로 다루었으면 한다.
 - <본방을 보자> 줌인 노래방 코너에서 영자네 밥상 사수님의 훌몸 어르신 반찬 봉사, 잔칫상 등 다양한 봉사 소개는 긍정에너지를 주게 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줌인 노래방의 사수님들 소개 시 봉사하신 분들이 출연함으로써 더욱 훈훈한 코너가 되면 좋을 것 같다.
 - <본방을 보자> 달려 본방 코너에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선수들의 빙고을 훈련장 모습과 감독, 선수 인터뷰 시 박지선 리포터의 활달한 제스처는 생기가 있지만 너무 과해 부담스러웠다. 뉴스본방 코너에서 건강 기능식품 인증마크 있을 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불법이며 처벌받는다라는 내용과 거래하는 경우 자격증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무료 나눔도 불법으로 처벌받으며 인증마크 없는 일반 식품은 가능하다는 정보는 좋은 정보로 유익했다.
 - <본방을 보자>에서 슬기로운 방학 생활 문화 바캉스는 국립광주과학관 항공 우주 특별전 소개 및 다양한 과학 문화 소개, 시립미술관 전시소개 등 광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는 더욱 권장되어야 할 좋은 정보인 것 같았다.
- 김영신 위원 : -‘광주와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광주가 기존의 인권, 역사문화의 도시에서 문화 관광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마련한 야심찬 문화 공연 프로젝트로, 광주시와 광주MBC가 함께 공동 기획한 작품이다. ‘광주와 페스티벌’은 ‘광주를 노래하자 1’, ‘광주를 노래하자 2’, ‘See You In Gwang ju’ 총 3회의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총 6회에 나누어 TV로 방송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순이, 10센치와 같은 가수과 프라우드먼, 아이키와 같은 댄스팀이 참여하여 관객의 대단한 호응을 유도하였으며, 이 공연이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았지만 TV로도 방송이 되어 많은 시청자가 광주의 명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안방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 광주시와 광주MBC의 기획력이 돋보였던 공연 및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상황에 갖춰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고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가 자주 없었던 광주시민에게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은 공연이었다. 다만,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이 현장에서 또는 안방에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

- 송경용 위원 : -1월 4일 <본방을 보자> 지켜온 운동은 그만! 즐겁고 신나는 스피닝으로 새해 다이어트 성공해요!라는 영상을 보고 새해에 다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리포터분이 직접 스피닝을 타고 숨이 가쁜 상태로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많은 국민이 이 영상을 통해 영향을 받아 새해에는 누구보다 다이어트를 건강하고 힘차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영상이었다.

-광주·전남이 물 부족 현상이 되며 제한급수 위기에 놓였다. 취약계층과 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라 하였다. 광주시와 광주문화방송이 생수 100만 병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500ml 생수 100만 병 모아 취약계층과 섬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좋은 캠페인을 홍보하여 물 나눔 기부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캠페인을 뉴스뿐 아니라 더 많은 매체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1월 12일 <본방을 보자> 주어진 시간은 단 1분! MZ세대가 폭 빠진 ‘숏폼 열풍’을 시청했다. 평소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여가에 숏폼 콘텐츠를 많이 접했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보게 되니 더욱 반가웠다. 특히, 진행자분이 직접 댄스 학원에 가서 춤을 배우고 찍어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재밌게 시청할 수 있었다. 영상을 통해 잘 찍는 꿀팁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하고 도전해보는 만큼 나도 나중에 꼭 숏폼 콘텐츠에 도전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심상돈 위원 : -<시사 인터뷰 오늘>에서 10.29 참사 국정보고서 채택, 국회의 역할에 관해 인터뷰했다. 55일간의 조사. 국정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잘 설명 해주었다. 어느 정도의 성과에 대해 인정한다. 앞으로의 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참사의 유가족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이 원래의 취지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복잡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했다.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에 관한 쟁점을 잘 설명해 주었다. 인터뷰의 쟁점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 대표보다 더욱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일반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언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오광호 위원 : -지난 12월 23일 <시사 ON>에서는 2022년 이슈를 정리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건, 정권교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10.29참사 등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 특히, 3高시대라고 불렸던 22년과는 달리 23년부터 대폭 완화되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 비율을 통해 정리되어 알기 쉬웠다. 또한, 학동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두 건의 사고 현황과 원인과 결과를 비교하여 되짚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그때의 아픔을 함께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었다.

-1월 12일 <본방을 보자>에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본방’을 통해 하루의 이슈와 주간행사 정보 등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좋았다. ‘화천 산천어 축제’ 관련 코너에서는 현장의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으나, 화천군수의 인터뷰 동안 축제장의 오디오 소리가 계속 겹쳐 인터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마지막 오픈 채팅방 코너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코너별로 소통을 할 수 있어 시청자들의 다양한 소식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으며, 방송 중간중간에도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주면 시청자들의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

- 최정욱 위원 : -<본방을 보자> 중 화요일에는 주로 뉴스본방, 본방토크가 진행된다. 수요일에는 뉴스본방, 월간본술랭, 달려본방이, 목요일에는 뉴스본방, 줌인노래방이 방송된다. 이외 시간에는 생활, 여행, 여가 등 기타 흥미 있는 주제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이야기보다는 주로 타지역에 대한 주제가 많은 것 같다.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방송했으면 좋겠다.

-마한에 대한 방송 중 요시노가리 공원과 마한의 연관성, 한반도와 일본교류의 흔적, 조족문토기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해상왕국 마한>에서 이를 말끔히 해결해 주는 시원한 방송에 감사하다. 단, 최태성 소장님의 영암 왕인박사의 소개에서 마치 왕인박사가 마한사람인 것처럼 소개되는 장면이 있다. 왕인박사는 백제 사람이다. 물론 마한-백제는 일본 청동기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왕인박사가 마한 시대 일본교류의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린다. 새해 들어 뉴스가 힘이 있다. 고발성 뉴스가 잇달아 터지면서 살아있는 기자정신이 느껴진다. 한전 농가 저온창고 위약금 폭탄 부과 연속보도는 보는 이의 공분을 자아 내기에 충분했다. 임지은 기자의 기사 짜임새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평소 제보관리를 잘하고 희박한 가능성에도 특종의 냄새를 맡고 바로 뛰어나가는 자세가 엿보인다. 박수를 보낸다.
- 윤행석 콘텐츠제작본부장 : -<시사 인터뷰 오늘>에 관한 지적에 공감하며 추후 다른 아이템 방송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본방을 보자> 리포터의 제스처는 프로그램을 활력을 불어넣는 캐릭터다. 제작진에게 전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 오픈 채팅방은 방송 중에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해상왕국 마한>에 대한 말씀 중에서 왕인은 백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마한이 백제에 복속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마한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동안 광주MBC <마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왕인 마한인설'에 근거해 왔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린다. <광주와 페스티벌>은 SNS 홍보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유튜브 LIVE, 현장직관 관객 수는 주목할 만큼 많았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각종 선거의 문제점에 관해곽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신인 발굴 등의 이슈를 선점해 뉴스 아이템과 <시사 ON> 아이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생수 100만 병 챌린지 캠페인은 앞으로도 생수 모집이나 취약계층 지원 이벤트 과정을 뉴스에 담아내도록 하겠으며, SB 시간대에 지속해서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시사 인터뷰 오늘> 의견에 관해서는 다른 아이템 방송 시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의견에 감사드린다.
- 조경완 위원장 : -오늘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제작에 참고하여 시청자의 바람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 김낙곤 사장 : -2023년 바쁜 연초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늘 나온 의견들은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층 나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이것으로 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이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린다.

끝.